



알칸사사랑의교회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은혜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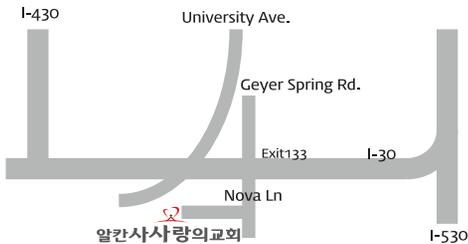
본 교회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 ■ 섬기는 이

담임목사 홍성태 (501-703-3251)  
nanumsangja@gmail.com  
중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온누리교회, (서울)지구촌교회, 더사랑의교회 사역

당회원  
김재철(재정), 이윤희(교육), 전영순(예배)

### ■ 오시는 길



### ■ 선교 및 후원

정기 후원  
1. Muazzam John (Nehemiah Trust Pakistan, 파키스탄)  
2. Adam & Rachel Jamison (Hope Ignited, 아프리카 기니)  
3. 김금찬 & 김미자 선교사 (JDM, 엘살바도르)

비정기 후원  
Sarah & David (CP, 캄보디아, 베트남)

### ■ 모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Adult Worship	오전 11:00 sun am 10:55	본 당 Main Hall
수 요 예 배 Wednesday Worship	저녁 7:30 wed pm 7:30	본 당 Main Hall
토 요 예 배 Saturday Worship	오전 7:00 sat am 7:00	본 당 Main Hall

어린이 예배와 모든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 모임이 없습니다.  
Children's services and all small groups are not held due to COVID-19.

**GREATER**  
than Any others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주일 오전 11:00		인도: 홍성태 목사 [Pastor Hong]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Jubilate Praise Team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Together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Together
찬송	Hymn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O worship the King
대표기도	Prayer	전영순 장로 Elder. Youngsoon Jeon
인사와 교제	Greetings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Pastor Hong
설교	Sermon	히브리서 [Hebrews] 2:17-3:1 <b>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b> 홍성태 목사(Pastor Hong) [As Good As It Gets]
봉헌	Offering	박요셉 & 오승진 청년 Joseph & Aaron
찬양	Doxology	주만 바라볼찌라 Draw unto the Lord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Pastor Hong

## 주 중 모 임 [Weekly Meetings]

수요예배 [Wednesday] (9월 9일 저녁 7:30)	토요새벽기도 [Saturday] (9월 5일 오전 7:00)	목장모임 [Small Group]
살롬? [열왕기상 2:12, 46]	생명의 삶 [예레미야 31:10-20]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Welcome!!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 2. 예배에 대한 안내

1. 모든 공예배(주일, 수요일, 토요일)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 1) 현장예배

- 지정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배 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대면접촉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온라인 예배

- 정확한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똑같이 예배합니다.
- 예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이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082902757 501711864(Centennial Bank)

\*\*교회 주소: 8201 Frenchmans Ln, Little Rock, AR 72209

- 어린이 및 유스가 있는 가정에서는 예배 전 후에 꼭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및 단체채팅방에 링크된 콘텐츠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공지게시판과 단체채팅방에 영어사용자를 위한 설교요약문과 주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10월 중 '주차장 예배'가 있습니다.(추후에 자세한 일정 공지)

### 3. 9월 대표기도

Public prayer

6일: 전영순, 13일: 이윤희, 20일: 조순자, 27일: 신종화

\*\* 녹음파일을 흥성태목사에게 보내시거나, 주일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 4. 기도함시대!

Pray at Home

1. 코로나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
2.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통해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3. 이 땅의 폭력과 인종차별과 우월주의가 사라지도록
4. 교회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6.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9월의 묵상 본문 : 예레미야

## 은혜 나눔

나는 세상 앞에 당당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수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토요일 저녁, 부천에 사는 아들과 통화를 하는 중, 아들로 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요즘 저의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이 매우 잘못되었을 일깨워 주십니다. 설교 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가 기복주의 신앙에 갇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풍요와 안락을 누리는 생활, 이른바 '복지(wellbeing)'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훨씬 이상의 것을 바라셨는데, '웰빙'이라니!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웰빙을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웰빙이 인생의 전부인양 여겼고, 세상과 경쟁하며 기대 이상의 웰빙을 얻어내었습니다. 웰빙을 위해 나를 성실하게 일했고, 웰빙을 보장받기 위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복채를 바치듯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저급하고 바리새인 같았는지요? 예수 한분이면 충분한데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불신했고, 예수님 대신 돈을 인생의 반석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웰빙 다음의 주제였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저의 잠든 영혼을 깨우셨고,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고난 없는 삶이 불행 자체일 수 있음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철저히 부서져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나팔 불듯 나대지는 않겠지만, 누가 물으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을 욕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 주변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부여된 사명이며,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well-being'이 아닌 'holy being'을 추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holy being!”

아들은 수화기 너머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난 할 말을 잃었다. 뜨끔하고 화끈거렸다. 나를 돌아 보았다. 주께 감사했다. 아들에게 귀한 목자를 만나게 하셨음을! 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을! 아들에게 깨어지는 심령을 주셨음을!